

## 새 자료 염상섭 「만세전」의 「작자(作者)의 부기(附記)」(『시대일보』, 1924.6.4., 3면) 연구\*

이은선 \*\*

### -차 례-

1. 서론
2. 「작자의 부기」와 「묘지」에서 『만세전』에 이르는 경로
3. 1922년~1924년 작가 염상섭의 집필 활동 재구성
4. 염상섭의 ‘만세’에 대한 인식과 ‘독자’의 기원
5. 결론

---

\* 이 논문은 제63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 학술대회(2023.7.7.) 발표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임정연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 한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강사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새 자료 「작자의 부기」를 소개하고, 1922년에서 1924년에 이르는 기간 염상섭의 집필 활동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염상섭이 『시대일보』에 「만세전」 연재를 마치면서 「작자의 부기」를 썼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1924년 6월 4일 『시대일보』 3면이 찢겨 있어, 해당 기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작자의 부기」는 「묘지」를 「만세전」으로 개제(改題)하여 집필하던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에 따르면, 1923년 여름부터 염상섭은 200혈로 제한된 「만세전」을 쓰기 시작한다. 그의 계획은 「만세전」과 더불어 「만세후(萬歲後)」를 쓰는 것이었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했고, 「만세전」 종편(終篇) 역시 누락되었다. 작가는 이에 대한 양심상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독자’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작자의 부기」를 통해 「묘지」에서 「만세전」으로 개제하는 과정을 복원하여, 「만세전」 연구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만세전」, 염상섭, 「작자의 부기」, 『시대일보』, 3·1운동, ‘독자’ 인식, ‘만세후(萬歲後)’

## 1. 서론

한국 문학사에서 엮상섭의 「만세전」은 오랜 기간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재선은 엮상섭의 「만세전」이 1922년에서 1948년 사이 개작됨으로써 비로소 완결된 작품임을 밝혔다.<sup>1)</sup> 「만세전」 개작과 관련하여, 최태원은 「묘지」에서 동시대적 사건인 ‘신석현 사건’이 허구적으로 삽입되는 양상<sup>2)</sup>을 분석하고, 박정희는 1948년의 단행본 『만세전』으로 개작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sup>3)</sup> 「묘지」가 발표된 지면인 『신생활』과 엮상섭의 관련에 대한 논의도 제출되었다. 엮상섭은 『신생활』의 ‘객원’으로 활동하면서, 3회에 걸쳐 「묘지」를 연재하였다.<sup>4)</sup> 검열기관의 압박에 밀려 월간지로 전환한 『신생활』 6호부터 문학 지면이 확대되어 창작 소설과 번역 소설이 다수 게재되었는데, 엮상섭의 「묘지」가 연재된 것도 이때였다.<sup>5)</sup> 박현수는 『신생활』 7호에서 9호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엮상섭의 흔적을 『신생활』 10호부터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sup>6)</sup>한다. 엮상섭이 『동명』의 기자로 일하게 되어, 『신생활』의 입장에서 9호까지 ‘객원’으로 일했던 엮상섭의 음영을 지워내는 일이 필요<sup>7)</sup>했을 것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연구사 검토 과정에서 「만세전」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 자료 「作者(작자)의 附記(부기)」를 통해 네 가지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 먼저 「만세전」

- 1) 이재선, 「일제의 검열과 「만세전」의 개작—식민지시대 문학 해석의 문제」, 『문학사상』, 1979.11., 80면.
- 2)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묘지와 “신석현(新濤縣)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Vol.27 No.2, 일지사, 2001, 110면.
- 3) 박정희, 「「만세전」 개작의 의미 고찰—‘수선사관’ 『만세전』(1948)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309면.
- 4)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新生活)』」, 『사림』 49, 수선사학회, 2014, 83면.
- 5) 김현주, 「잡지 『신생활』의 문화 정치와 러시아혁명사」, 『민족문화연구』 9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428-429면.
- 6) 박현수, 「『신생활』 필화사건 재고」,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354면.
- 7) 박현수, 「신문지법과 필화의 사이—『신생활』 10호의 발굴과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295-296면.

집필 시기에 관한 것으로, 1924년 『시대일보』에 연재된 「만세전」의 3장 이하를 정확히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다<sup>8)</sup>는 것이다. 이는 「만세전」 중 「묘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텍스트(전체 분량의 2/3가량)를 언제 쓰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1924년에 발간된 단행본 『만세전』에 실린 「序를대신하여」<sup>9)</sup>를 통해 집필을 마친 시기는 알려진 반면 『시대일보』에 실린 「만세전」 집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목의 변경과 관련된 것이다. 이보영은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묘지’와 ‘만세전’이라는 두 개의 제목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시대일보』에 연재할 때, ‘만세전’이라는 제목을 착안하여 그렇게 고쳤을지도 모른다고 짐작<sup>10)</sup>하고 있다. 박현수는 「묘지」에서 「만세전」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개작을 추동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이어서 1922년과 1924년 두 시기, 염상섭의 행적과 사상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 있다.<sup>11)</sup> 최근 김현주·조정윤은 『만세전』의 원고가 고려공사의 손에 들어간 데는 분명히 신생활사와의 인연이 작용했을 텐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sup>12)</sup>고 지적한 바 있다.

후술하겠지만, 「작자의 부기」를 통해 「만세전」 집필 시기, 구상과 실제 집필 사이의 차이, 외부적 요건 및 제한을 비롯한 상세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자의 부기」는 「묘지」에서 『만세전』에 이르는 개작 과정과 1922년에서 1924년에 이르는 기간 염상섭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본 논문은 「작자의 부기」를 소개하고, 이 텍스트를 분석하여 「만세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시대일보』 연재 관련한 서지 중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오류는 「만

8) 이정임, 「염상섭 소설의 판본 비교 연구—「만세전」, 「해바라기」, 『삼대』의 해방 후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8, 13면.

9) 염상섭(廉想涉), 「서序를 대신하여」, 『만세전』, 고려공사, 1924.

10) 이보영, 『난세의 문학—염상섭론』, 예림기획, 2001, 123면.

11) 박현수, 「「묘지」에서 「만세전」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만세전」 판본 연구」,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404면.

12) 김현주·조정윤, 「『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운동의 편린」, 『대동문화연구』 12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2, 155-156면.

「만세전」이 『시대일보』 1924년 6월 7일까지 연재되었다는 기록이다. 박상준은 “논자에 따라 『시대일보』 1924년 4월 6일에서 6월 1일 혹은 7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은 6월 4일자 59회로 끝나 있다”<sup>13)</sup>고 바로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6월 7일까지 연재되었다는 기록이 발생한 이유를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라 가정한다. 박현수에 따르면 현재 보존되어 있는 『시대일보』 영인본에서도 「만세전」의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sup>14)</sup> 현재 남산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대일보』 1924년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자 하단이 찢겨 나가 있기 때문에 연재 종료일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만세전」이 연재되던 하단 기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작자의 부기」 역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는 새 자료 『시대일보』 1924년 6월 4일 3면 하단의 「작자의 부기」<sup>15)</sup>이다.

㊦墜落한飛行士가 쓰내기목숨을어더가지고 粉碎된機體미트로 영금영금 기어나와서 『응! 달래 썰어젼나! 數千米突의空中에서 찍굴우박여도 목숨은 이리케부터잇다는것을 보이자고한작난이지! 놀라는너의들이야말로 艾湯이다』라고하면 구경군은 그飛行士가 높은空中에서떨어져나려오는바람에 肝이뒤집혀서 그런소리를한다고할것이다



이와가튼예는 우리가到處에서볼수잇는일이요 또한그럴때마다 不快함을늦기고甚하면 그辨明가지안흔辨明을하는當者에게對하여 激烈한憎惡의念까지를갓게된다 무엇보다도알기쉬운예를들면受驗者가 時間이不足하여, 또는 教師가苛酷하여, 充分한答案을提出치못하였다고머리를긁음제 우리가잇는感情이곳그것이다 웨그러나하면元來辨明이라는것은 弱者가避難處를 차지라는努力에서나온것이요 그結果는다만 自身の또한가지過失이나不完全이라는것을 거듭하게하는거

13) 박상준, 「지속과 변화의 변증법-〈만세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Vol.22 No.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382면.

14) 박현수, 「「묘지」에서 「만세전」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만세전」 판본 연구」,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378면.

15) 2000년대 후반, 일본의 고서점에서 함태영 선생님께서 구입한 개인 소장 자료임을 밝힌다. 열람을 허락해 주신 데 감사를 표한다.

맞게아니되는것이기째문이다



내가『萬歲前』을發表하고그마지막날에當하여 作品의內容에부딪치지안는一種의辨明을橫說豎說한다면 讀者여러분은 作者의沒廉한程度가우에말한墜落飛行士나 低能兒의受驗者와다를것이없다고할것이다 果然나도 그러타고自認하는바이다 다시말하면 ㉠弱者로自處하여 避難處를차저들어가겠다는뜻이다 웨그[러]냐하면 良心上多少의부쓰러운點이잇기째문이다



㉡이一篇은 昨年여름에 某方面과關係上 執筆하게된것이였다 ㉢처음 나의計劃이라든지契約은 『萬歲前』을쓰고『萬歲後』를쓰기로하였섯다, 그런데나自身の構想으로말하면未熟한숨씨로나마『萬歲前』에잇서는朝鮮의有史以來로民族の大試練이라할만한三一運動을區劃點으로하여그運動前의우리内外의生活을描寫하여三一運動이넘어났고○運의暗示를준뒤에『萬歲後』에미치라한것이였고, 『萬歲後』로말하면三一運動後에時時刻刻으로變遷하고動搖되는諸現象中統括的으로抽象된一點을붓들어서그러보라하얏다.그러면『萬歲後』는將來에屬한바이니카이에學論할바아니로되㉣이『萬歲前』에잇서서 무엇보다도 作者自身이 不滿을누기는것은終篇의全部를漏落하얏다함이니 이는讀者에쌀하서龍頭蛇尾라는 ○毀가잇드라도甘受치안홀수가업는바이다



㉤그러나이에대하여는理由가업는것은아니다 當時이作品을出版하겠다는方面에서 二百頁이라는 絶對制限을주고 續篇도無用이라는強硬한主張이第一인이요 ㉥第二因은내가늘 紛忙한대에잇섯다고할수잇다 어쨌든시간에 이一篇은成功與否는姑捨하고 이대로도完篇되었다고할수잇고또後日에어쨌한形式으로든지 續篇을쓸수도잇는것이나㉦靜子에對한 書信으로 自己構想의一部라도表明하라고 努力한것은 ○體인同時에 그만큼作者自身の苦痛이잇슴만은 讀者諸君이알아주시면 고마운일이다그러면 或어쨌한분은이러케反問 할지도 모른다—이다지窘窮한辨明을하랴면當初에 發表치안했슴이어쨌하얏느냐고? 그러나여기에누가대어答辨할必要를찾지못한다(六月二日夜病席에서)<sup>16)</sup>(기호, [ ]는 인용자)

16) 염상섭(廉想涉), 「作者의 附記」, 『시대일보』, 1924.6.4., 3면.

## 2. 「작자의 부기」와 「묘지」에서 『만세전』에 이르는 경로

「작자의 부기」는 ㉔에서와 같이 “추락한 비행사”에 대한 비유로 시작한다. 염상섭은 당대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동시대 독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그는 ‘비행기’에 대해 몇 차례 회고한 바 있는데, 먼저 1926년, 4년 전에 있었던 비행기를 둘러싼 소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조선 사람은 자동차 운전수가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삼천리강산을 뒤집어엮고, 남대문 정거장에서 사람이 밟힐 지경이었으며, 조선 사람이 가진 단 두 개의 신문 중 하나는 대문짝만한 활자를 가로 세고 모로 세어가며 떠드느라고, 며칠 동안 조선 사람의 생활이 휴업을 한 관(觀)이 있었다는 것이다.<sup>17)</sup> 1957년, 「육당 六堂과 나」에서도 『동명』 지가 창간된 후 편집 실무를 맡아 보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여름에 우리나라가 처음 낳은 조인(鳥人) 안창남(安昌男)이 개선장군같이 환국하여, 여의도비행장에서 고국에서의 처녀비행인지 기념비행인지를 하던 날 아침”을 떠올린다. “쌀쌀한 초동이었으나 청쾌한 날씨”였고, “서울 안의 각층각계 명사란 다 운집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염상섭은 비행사 안창남에 대해 몇 차례 회상하는데, 당대의 사건을 비유로 차용함으로써 역사성을 담보하는 서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작자의 부기」가 신문에 발표된 날짜는 6월 4일이지만, 원고 말미에 있는 “六月二日夜病席에서”를 통해 염상섭이 1924년 6월 2일 「작자의 부기」의 부기를 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㉔는 「만세전」 집필 정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昨年여름”, 즉 1923년 여름에 「만세전」 집필

17) 염상섭(廉想涉), 「6년 후의 동경에 와서」, 『신민』, 1926.5.(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2013, 492면(이하 “문장 전집” 권, 면만 표기).

18) 염상섭(廉想涉), 「육당六堂과 나」, 신태양, 1957.12.(문장 전집 III, 376면).

19) 이와 같은 비유와 환기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이종호의 분석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염상섭의 소설과 산문이 지니는 특이성의 하나로 함축적인 명사적 표현을 들 수 있다. 단어의 사전적 지시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그 고유명사가 지니는 역할과 위상을 환기하고, 그 결과 사전적 지시성보다 더 풍부하고 다층적인 내용과 사건을 함축한다는 것이다(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 한기형·이혜령 편,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53-54면).

을 시작했다. “某方面과關係上 執筆하게된것”에서는 「만세전」 집필의 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묘지」에서 「만세전」으로 제목을 바꾸어 집필하게 된 과정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1923년 여름이 『신생활』 폐간 이후 신생활사 서적 판매부의 활동이 이어지던 시기에 해당된다는 점<sup>20)</sup>을 참고하여, ‘모 방면’을 신생활사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신생활』에 「묘지」를 연재하다가 중단했고, 1923년 여름 집필을 시작한 후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대일보』 연재 이후 1924년 8월 10일 고려공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했다는 사실에도 부합한다. 신생활사와 염상섭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작자의 부기」를 읽을 때, 고려공사에서 발간된 『만세전』의 판권지에서 “京城 高麗公司 發行”, “京城府堅志洞八〇番地 印刷人 金重煥”, “京城府堅志洞八〇番地 印刷所 新生活社印刷部”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만세전』은 신생활사 인쇄부에서 인쇄되었다. 이와 같이 「작자의 부기」는 「묘지」의 중단과 「만세전」의 집필, 그리고 단행본 『만세전』에 이르는 과정의 일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신생활』에 연재하던 「묘지」의 중단 이후 염상섭은 ‘모 방면’ 신생활사와의 관계 속에서 1923년 여름 「만세전」 집필을 시작하고, 1923년 9월 집필을 마친다. 그리고 이 원고를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대일보』에 연재하고, 1924년 8월 10일 단행본 『만세전』을 간행한다. 「작자의 부기」를 통해 『시대일보』에 연재하기 전 구상과 집필을 마쳤다는 사실과 『신생활』의 「묘지」와 고려공사 『만세전』 사이의 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작자의 부기」를 통해 ‘묘지’에서 ‘만세전’으로 제목을 바꿀 때, ‘만세후’를 함께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세후」에서 삼일운동 후 변천, 동요되는 현상 중 통괄적으로 추상된 점을 그럴 계획이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못하

20) 『신생활』은 1923년 1월 8일 발행한 제16호(임시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고, 필화사건 재판이 종결된 것은 1월 16일이었다. 신문에서 확인되는 신생활사(서적) 판매부의 활동은 1923년 8월 29일 『이리엣트니야기』의 발행이 마지막이다.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924년 1월 8일과 9일에 고려공사와 춘추각서점이 각각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다(김현주·조정윤, 앞의 논문, 147면, 151면).

였다.

㉞에서 염상섭은 자신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종편의 전부를 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힌다. ‘용두사미’라는 독자의 비판이 있어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상과 실제 집필 사이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염상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㉞에서와 같이 당시 작품을 출판하겠다는 방면에서 “二百頁”, 즉 200페이지라는 절대 제한을 주고, 속편도 무용이라며, 강경하게 주장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924년 출간된 단행본 『만세전』의 분량이 195쪽인 것을 고려하면, 염상섭이 이와 같은 분량 제한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자신이 늘 분망했던 데서 찾고 있다. 염상섭은 성공여부는 고사하고 우선 이대로도 완편(完篇)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후일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속편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자체는 열어 두고 있었다. ㉞에서 “靜子에對한 書信으로” 구상의 일부라도 표명하려고 노력한 데 자신의 고통이 있음을 독자 제군이 알아준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 3. 1922~1924년 작가 염상섭의 집필 활동 재구성

염상섭은 1924년 8월 10일 고려공사에서 발행한 『만세전』에 「序를 대신하여」<sup>21)</sup>를 신는다. 「작자의 부기」를 참조하면, 이때 “서(序)”가 아니라, 왜 “序를대신하여”를 신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는 단행본 출간에 이르기까지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序를대신하여」가 이상할 정도로 짧고 간명한 서문이며, 저자의 고유명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2)</sup> 염상섭은 1923년 9월 집필을 마치고 「序를대신하여」를 써 놓았지만, 이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1924년 6월 2일 「작자

21) 염상섭(廉想涉), 「서(序)를 대신하여」, 『만세전』, 고려공사, 1924.

22) 이종호,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13면.

의 부기」를 집필하고, 6월 4일 『시대일보』에 「만세전」 연재를 마치며 이를 발표한다. 이후 1924년 단행본 『만세전』을 출간할 때 1923년 9월에 집필해 놓았던 「序를대신하야」를 신는다. 작가 염상섭의 입장에서는 ‘서(序)’와 ‘부기’ 등 ‘작가의 말’을 쓰는 시기와 신는 시기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던 반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미 「작자의 부기」를 읽은 이후 시점에 발간된 『단행본』의 「序를대신하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염상섭은 「작자의 부기」와 「序를대신하야」가 독자와 만나는 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동시대의 독자가 「만세전」 집필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연재를 마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묘지」에서 「만세전」에 이르는 과정을 당대 작가와 독자는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序를대신하야」

◇

내가, 웨 이것을 썼느냐는것은, 잘되었든 못되었든 이作自身이 나를대신하야 諸君에게 말할것이다.

◇

이作에, 열만한 生命과 價値가잇겠느냐는것은, 조튼 글튼, 諸君이 作을대신하야 말할것이다.

◇

나는, 이 두가지를 미듬으로, 쏘다시 입을버리라고는 안이한다.

癸亥九月 作者<sup>24)</sup>

「序를대신하야」는 「작자의 부기」와 동일한 논리 구조를 보여준다. 작품 자체가 말할 것이고, 독자가 결국 이 작품을 대신하여 말할 것이라는 기대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잘되었든 못되었든”, 그리고 “조튼 글튼”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수 있다. 1930년 염상섭은 “장편으

23) 실제로 이 두 독자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록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작자의 부기」를 읽은 독자가 단행본 역시 읽었으리라는 것은 일종의 가정에 해당한다.

24) 염상섭, 「序를대신하야」, 『만세전』, 고려공사, 1924.

로 처음 쓴 것이 『만세전』인데 작의 성패는 차치하고 모델은 없었다”<sup>25)</sup>고 역설한다. 작품의 성패를 차치한다는 유보적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인식하는 ‘독자’의 존재를 작품 해석의 최종적인 심급으로 올려놓는 구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계해(癸亥)<sup>26)</sup> 9월 즉 1923년 9월, 염상섭은 「만세전」 집필을 마쳤다. 1924년 평문관에서 출판한 『남방南方의 처녀』의 「역자의 말」에서도 “계해(癸亥) 첫겨울 역자”를 발견할 수 있다.<sup>27)</sup> 1924년 1월 1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고뇌의 갑자(甲子)를 맞자」에도 “계해(癸亥) 12월 23일 동지”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8)</sup> 이 “癸亥九月”이라는 기록으로 인해 북한 문학사에서는 『만세전』을 1923년 발표된 텍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조선문학선집<sup>29)</sup> 16권 『인력거군』<sup>30)</sup>에서는 “렘상섭 만세전”, “1923년”이라 기록하고 있다. 1924년 고려공사 판본<sup>31)</sup>과 1948년 수선사 판본<sup>32)</sup>의 결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책에서 저본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는 수선사 판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48년 수선사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발표 시점은 “1923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출판된 『조선근대소설사』에서도 “중편소설 《만세전》(렘상섭, 1923)”으로 기록하고 있다.<sup>33)</sup> 『시대일보』에 연재된 1924년과 고려공사에서 출판된 1924년을 고려하면,

25) 염상섭(廉想涉), 『「만세전」과 그 여성』, 『삼천리』, 1930.5.(문장 전집 II, 214면)

26) 한만수는 “연호年號는 서기나 불기, 단기 등을 쓰지 말고 쇼와昭和나 다이쇼大正 등 일본 연호를 쓸 것”에 대해 “급지어 장벽 우회하기”의 차원에서 조선인들은 ‘육십갑자’를 사용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한만수, 『잠시 겹일이 있었습니다—떡칠과 가위질 100년의 사회사』, 개마고원, 2012, 50~51면).

27) 문장 전집 I, 235면.

28) 문장 전집 I, 300면.

29) 오태호에 따르면, 1998년의 『현대조선문학선집』에서는 ‘일정한 사회현실의 반영’이라는 부분적 긍정성에서 진일보하여 세부적인 분석과 해석이 진행된다(오태호, 「염상섭 초기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사의 인식 변화 양상 고찰—중편소설 「만세전」 등에 대한 『조선근대소설사』(2013)의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8, 국어국문학회, 2022, 211면).

30) 주요섭 외, 『(소설집) 인력거군』,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33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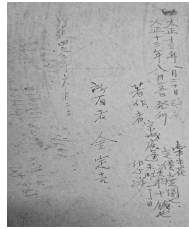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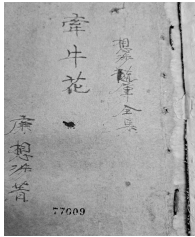
31) 염상섭, 『만세전』, 고려공사, 1924, 194면.

32) 염상섭, 『만세전』, 수선사, 1948, 203면.

33) 한중모·심경섭, 『조선근대소설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182면.

“1923년”이라는 표기는 발표 시점을 표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첫 단편집 『견우화』는 1924년 8월 25일 박문서관에서 출판된다. 김영민에 따르면, 『견우화』의 초판 판권지에는 이 책의 발행일이 대정(大正) 13년 즉 1924년 8월 25일로 명기되어 있고, 다만 이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자서」는 그보다 앞선 1923년 5월 30일에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4)</sup> 『견우화』를 검토하던 중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1923년 발간된 『견우화』를 소장하고 있다는 검색 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판권지를 확인한 결과 1924년 판본이었다.<sup>35)</sup> “大正十三年”을 1923년으로 잘못 기록했거나, 표지와 판권지가 낙장되어 ‘수기’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견우화』 표지      [그림] 2 판권지

『견우화』의 「自序」에는 “一九二三年五月三十日夜”, “東明社編輯室에서 想涉 識”으로 기록되어 있다. 판권지에서 “大正十三年 八月 二十日 印刷”, “大正十三年 八月 二五日 發行”, “定價 壹圓”, “著作者 想涉”, “發行所 京城府 蓬萊町 一丁目 八十八番地 博文書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夜叉의마음을가즌菩薩이나 菩薩의마음을가즌夜叉나 그矛盾에 苦惱煩悶하는 것은 가틀것이다. (……) 이러한意味로 나의처음發刊하는 短篇集에[에]對하야

34) 김영민은 단편집 『견우화』의 출간연도가 1923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문장 전집 I, 276면), 이 책의 실제 출간연도는 1924년이라고 바로잡고 있다(김영민, 「염상섭 초기 산문 연구」, 한기형·이혜령 편,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230-231면).

35) 원본 열람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감사를 표한다.

夜叉의마음을가른菩薩을意味하는 『牽牛花』라는表題를 擇하였거니와, 이에실은 三篇은 藝術的價値로도 매우貧弱하고 그量으로도 敢히 文壇에 公開할만한價値가없으나, 오즉 우리가 얼마나 苦悶하는가를 表明하는同時에 各各 그어찌한方面으로 解決되는가를 提示한點만은 或讀者에 잘해서 나의뜻을어들까하여 스스로 辱됨을 돌보지안코 文壇에 바치라함이다. (……) 거듭말하거니와 여기에 兪만한 藝術的生命과 價値가잇느냐는것은 나自身도 및지못하는바이다. 다만 나의意圖가 여기에잇다는것만을 ㅍ작을通하여 讀者諸位에게 諒察케된다하면나에게는 幸甚이갓다.<sup>36)</sup>

위 예문에서도 ‘독자’와 작품의 평가에 관련된 반복적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적 가치가 빈약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문단에 공개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나의 뜻”을 얻을까하는 희망에서 이 책을 내어 놓는다. 예술적 생명과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작자 역시 믿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을 독자 제위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죄』의 「작자의 말」에서는 “과연 일만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고 이야기하면서, “의논하염직한 말동무가 된다 하면 문학적 가치는 별 문제로 하고 헛된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나눌 독자 여러분과 축복을 받으면서 벼루를 닦으려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마친다.<sup>37)</sup> 『광분』 연재 시 「작가의 말」에서는 인생의 큰 문제의 하나인 “성욕문제를 중심으로” 인생의 한 구절을 그려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인생의 모든 일이 깊이 캐어보면 먹는 문제와 성욕의 문제 아닌 것이 없지만, “독자는 여기에 홀리어서는 아니” 된다고 당부한다. 자신의 글이 아름답고 사연이 반가워서 홀린다는 뜻이 아니라, 작중 인물의 부도덕하고, 불건전하고, 불합리한 모양만이 눈에 띄고, 그 쾌감을 만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독자’ 여러분이 소설을 쓰는 ‘참목적’ 앞에 눈을 가리우고, 추잡한 죄악만이 흥미의 전체로 독자의 머리에 인상된다면, 작가 역시 세상의 꾸지람을 감당치 못할 것이며, 작가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오로지 ‘독

36) 염상섭, 「自序」, 『견우화』, 박문서관, 1924, 1-3면.

37) 염상섭(廉想涉), 「작자의 말」, 『동아일보』, 1927.8.9.(문장 전집 I, 651면).

자’ 여러분이 이 소설에 대해 갖는 태도와 이해 여하에 달렸다<sup>38)</sup>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염상섭은 각 텍스트의 ‘서(序)’에서 지속적으로 ‘독자’를 호명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작자로서의 기대를 표명하는 익숙한 구도를 생성해 갔다. 작자로서 작품의 성공을 믿는 대신 그 가치 평가를 유보한 후 ‘독자’가 그 작품의 진정한 주제 의식을 파악해 주고, 성공 여부를 최종 판단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텍스트에 대한 판단 유보와 독자에 대한 기대” 자체가 하나의 논리적 단위가 되어 여러 텍스트의 서문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4. 염상섭의 ‘만세’에 대한 인식과 ‘독자’의 기원

「만세전」이라는 제목과 ‘만세후(萬歲後)’ 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에게 ‘만세’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염상섭은 3·1 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고’한다. 1919년 3월 9일 「독립선언서」에서 “만약 오인이 이성을 빼앗기고, 신경이 마비되고, 맹우(盟友)를 봉쇄(封鎖)했다면, 오인은 혹은 민족의 파멸에 만족하고 군벌의 관료적 가정(苛政)에 묵묵히 오직 순종했을 것”이라 가정한다. 그러나 오인은 너무나 자신을 지나치게 알게 되었고, 폭수(暴手)가 두려워 이에 굴종(屈從)하기에는 너무나 자유의 존엄을 지나치게 깨달았다. 염상섭은 “재(在) 오사카(大阪) 한국노동자일동대표”로 자처한다.<sup>39)</sup> 이때 준비한 격문에서 “오사카 한국노동자 여러분!”, “한반도의 다혈아(多血兒)인 체군이여!”를 연이어 부른다. “기미(己未) 3월 18일”, “19일 오후 7시 정각”, “텐노지(天王寺) 공원 내 영산생(靈山生)”<sup>40)</sup>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칭은 이 글의 목적이 ‘체군’으로 하여금 실제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일 것을 독려하는 데 놓여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38) 염상섭, 「작자의 말」, 『조선일보』, 1929.9.17.(문장 전집 II, 152-153면).

39) 「독립선언서」, 문장 전집 I, 43-44면.

40) 「격(檄)」, 문장 전집 I, 46면.

1920년대 엽상섭이 지속적으로 ‘호명’한 독자의 원형은 「독립선언서」와 「격」에 등장하는 한반도의 ‘제군’에서 출발하였다. 엽상섭이 호명하는 ‘제군’은 지면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의 주체들이었다. 이와 같은 ‘선언’의 성패와 무관하게 엽상섭에게 ‘호명’ 작업 자체가 남긴 흔적은 깊고 분명한 것이어서, 이후 엽상섭이 3·1운동을 회고할 때, 그리고 3·1운동 이후의 ‘신문학’과 문단에서 ‘독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환기되고, 재의미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 엽상섭은 「문단 10년」에서 1919년의 3·1운동과 그 전후 ‘문단’의 형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연관시키는 논법을 등장시킨다. 우리의 최근사(最近史)로, ‘기미운동(己未運動)’을 드는데, 이때 ‘기미년 동요’, ‘기미동요’, ‘기미(己未)의 동란(動亂)’이라는 다양한 명명이 등장한다. 민족의식, 사회의식, 개인의식 모두에 “큰 충동을 주니만치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고 문학상에 새로운 기축(機軸),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은 당연한 바이니 조선의 문예부흥을 기미년으로 중심잡음도 또한 당연한 견해”라고 확언한다. 그 이전만 해도 ‘문학’이라는 것이 “오직 소부분(小部分) 인사(人士)의 관심사”였고, “그 내용도 공소, 유치함을 면치” 못했으나, “사회 전반으로 울연(蔚然)히 신생의 기운을 땀에 따라 문학 지식의 함양과 아울러 여기에 비로소 ‘신문학운동’이라는 명료한 의식과 비교적 진지한 노력을 보게 되었”<sup>41)</sup>다는 것이다. 1932년 「소위 ‘모델’ 문제」에서 엽상섭은 “기미년 3월 이후 오사카(大版) 미결감(未決監)에 4, 5삭 들어앉았던 전후에 벌써 정리되고 머리도 안정되었던 것”이라 언급한다.<sup>42)</sup>

해방 이후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련하여에서 엽상섭은 “문학은 무산자만을 위하여 제작되고 존재한 것”이 아니며, “대중화는 필요”하지만, “문학은 먼저 문학으로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sup>43)</sup> 「3·1운동과 신문학」에서 그는 당시 일본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41) 엽상섭(廉尙燮), 「문단 10년」, 『별건곤』, 1930.1.(문장 전집 II, 175-176쪽, 178면).

42) 엽상섭(廉尙燮), 「소위 ‘모델’ 문제」, 『조선일보』, 1932.2.25.(문장 전집 II, 346면).

43) 엽상섭(廉尙燮),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련하여」, 『호남문화』, 1948.5.(문장 전집 II, 80면).

사정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다른 부면(部面)은 모르니깐 문학에 한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그 당시의 문학은 동경 유학생이 중심”이었다고 회고한다.<sup>44)</sup>

「만세萬歲 전후의 우리 문단」에서 “3·1운동은 민족혼, 민족적 양심에서 저절로 우러난 일대 충격”이었다고 회고한다. 이에 따라오는 깊은 성찰과, 생명의 울부짖음, 생활력의 새로운 약동이 다른 표현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문화 방면, 그중에서도 문학적 표현이라는 길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염상섭은 “문학에 그 자체의 목적을 주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는 체구로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며, “예술이나 문학이 어떤 한 부문에 종속한 것은 아닌 것”이라 강조한다. 순수한 신문학, 진정한 민족문학을 세워야 하겠다는 자각이 문학을 연구한 청년들 사이에 들게 되고, 마침 3·1운동을 치르고 난 뒤 기예발랄(氣銳潑刺)한 진취적 기상과 기분이 일세(一世)에 팽배하였던 그 시기를 타서 본격적 신문예운동이 태동되었다.<sup>45)</sup>

3·1운동에 대한 회고가 이루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일정 정도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1930년에 이미 ‘문단’ 형성 후 10년이 경과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이 신문학 운동의 정신사적 토대가 3·1운동에 놓여 있다는 논의 구도가 완성되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논의 틀 자체가 반복됨으로써 더 공고해진다.

「작자의 부기」㉔에서 분명한 표현을 얻고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이 호명하는 ‘독자’ 여러분은 추락 비행사, 수험자, 작자(作者)가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는 것을 판명하는 준거가 된다. 독자에 기댄 채 염상섭이 자신의 작자적 위치를 자인할 때, ‘독자’ 여러분은 양심상 부끄러운 점이 있다는 고백을 듣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3·1운동의 ‘제군’에서 기원한 ‘독자’는 1920년대 초, 이상적 차원에서 자신의 글이 갖는 의미를 수신하고, 그것의 최종적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로 상정된다.

1920년대 ‘독자’는 염상섭이 발표하는 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할 뿐

44) 염상섭(廉尙燮), 「3·1운동과 신문학」, 『서울신문』, 1953.3.1.(문장 전집 III, 227면).

45) 염상섭(廉尙燮), 「만세萬歲 전후의 우리 문단」, 『조선일보』, 1954.3.1.(문장 전집 III, 267-269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변주된다. 「노동운동의 경향과 노동의 진의眞儀」에서는 “독자 제군도 이상 논술 중 미급(未及)한 자(者)는 양해하시고 여(余)의 이 논문을 초하는 여(余)의 근본정신을 짐작하여주시기를”<sup>46)</sup> 바란다는 당부가 등장한다.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 반응에 천착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문예와 생활」에서 현재 조선의 작가가, 당대인의 생활을 구성하는 시대의식과 사회의식, 민족의식을 무시하거나, 희박하고 불활발한 표현만을 보여준다 하면, 그 작품을 어디에 진열하고 어떠한 독자와 친교를 맺으려는가 의심하고 있다.<sup>47)</sup> 「작품의 명암」에서는 “나의 소설은 쓰(苦)고, 복개고, 무겁고, 답답하고, 텅텅하다고 한다”고 고백하며, 자신도 “이것을 시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한층 매운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나의 작품이 고삽(苦澁)하고 침울하고, 저기압 밑에서 신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나의 성격, 생활, 천분 등에도 의한 것이겠지마는 동시에 민족적, 시대적, 사회적, 지리적 모든 조건에 지배된 것도 사실일 것”이라 진단한다. 그리고 염상섭은 만일 자기에게 울고, 민족에 울고, 시대와 사회에 울면서, 자기와 독자가 웃을 수 있는 작품을 쓴다면 그것은 비극 무대에 나와 킬킬 웃는 무가치한 골계가 아니면, 정신이상의 광자(狂者)가 아닌가 반문한다.<sup>48)</sup> 이와 같이 염상섭은 독자와의 실질적인 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소설에 대한 평가에 직면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한다.

##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새 자료 「작자의 부기」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만세전」 집필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였다. 「작자의 부기」는 염상섭이 「묘지」를 「만세전」으로 게재하는 과정을 상

46) 염상섭(廉尙燮), 「노동운동의 경향과 노동의 진의眞儀」, 『동아일보』, 1920.4.22. (문장 전집 I, 110면).

47) 염상섭(廉尙燮), 「문예와 생활」, 『조선문단』, 1927.2.(문장 전집 I, 540-541면).

48) 염상섭(廉尙燮), 「작품의 명암」, 『동아일보』, 1929.2.17.(문장 전집 II, 45면, 47면).

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이다. 시간에 따라 집필과 발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염상섭은 1922년 7월, 8월, 9월, 『신생활』에 「묘지」를 신는다. 1923년 여름, 「만세전」 집필을 시작한다. 1923년 9월, 「만세전」 집필을 마친 염상섭은 「序를대신하여」를 쓴다.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대일보』에 「만세전」을 연재한다. 1924년 6월 2일, 「作者의 附記」를 쓰고, 1924년 6월 4일 「만세전」 연재를 마치며 「작자의 부기」를 발표한다. 1924년 8월 10일, 고려공사에서 단행본 『만세전』을 출판한다. 이때 1923년 가을에 써 둔 「서序를 대신하여」를 신는다. 1948년 2월 25일, 수선사에서 단행본 『만세전』을 발간한다.

본 논문에서 「작자의 부기」를 분석하여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자의 부기」를 통해 「묘지」에서 「만세전」으로 개제하는 과정을 복원하였다. 「만세전」을 집필한 시기를 확정하고, 이를 「만세전」 연재 날짜를 둘러싼 오류를 바로잡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어서 ‘모 방면’과의 관계를 신생활사로 추정하고, 「묘지」의 발표 지면인 『신생활』과 단행본 『만세전』을 발간한 고려공사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200월 이내라는 절대 제한이 외부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과 1924년 출간된 단행본 『만세전』의 분량이 195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염상섭이 이와 같은 분량 제한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작자의 부기」를 통해 단행본 『만세전』을 발간할 때 “서(序)”가 아니라, 왜 “서(序)를 대신하여”를 신고 있는가를 밝혔다. 작가 염상섭의 입장에서는 ‘서(序)’와 ‘부기’ 등 ‘작가의 말’을 쓰는 시기와 신는 시기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던 반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미 「작자의 부기」를 읽은 이후 시점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단행본 『만세전』에서는 「序를대신하여」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염상섭은 「작자의 부기」와 「序를대신하여」가 독자와 만나는 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동시대의 독자가 「만세전」 집필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연재를 마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묘지」에서 「만세전」에 이르는 과정을 당대 작가와 독자는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작자의 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만세전」과 ‘만세후(萬歲

後) 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엮상섭에게 ‘만세’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엮상섭은 3·1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고’한다.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와 「격」에 등장하는 한반도의 ‘제군’에 엮상섭이 호명하는 독자의 ‘기원’이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엮상섭은 각 텍스트의 ‘서(序)’에서 지속적으로 ‘독자’를 호명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작자로서의 기대를 표명하는 익숙한 구도를 생성해 갔다. “텍스트에 대한 판단 유보와 독자에 대한 기대” 자체가 하나의 논리적 단위가 되어 여러 텍스트의 서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작자의 부기」 전문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1922년에서 1924년에 이르는 기간 엮상섭의 집필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작자의 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한 반면, 「작자의 부기」를 「묘지」 및 『만세전』과 함께 읽는 작업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텍스트 해석을 둘러싼 논쟁적인 지점을 검토하고, 「작자의 부기」가 「묘지」 및 『만세전』을 읽는 데 어떠한 참조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New Material “Author’s Note”  
for Yeom Sang-seop’s “Mansejeon(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Sidaeilbo, June 4, 1924,  
page 3)**

Lee, Eunseon(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construct Yeom Sang-seop's writing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from 1922 to 1924 by introducing a new material the “author’s note”. Thus far, the fact that Yeom Sang-seop wrote an “Author’s Note” when he was finishing the serialization of “Mansejeon(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in the *Sidaeilbo* has not been known well. It seems that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relevant article because page 3 of *Sidaeilbo* dated June 4, 1924 was torn. The “author's note” is an important text in that it records in detail,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when Yeom Sang-seop was writing “Mansejeon” after changing the title from “Cemetery” into “Mansejeon”. According to it, Yeom Sang-seop began writing “Mansejeon”, which was limited to 200 pages, from the summer of 1923. His plan was to write “Mansehu(after the March 1st Movement)” along with “Mansejeon”, but “Mansehu” was not written, and all of the last part of “Mansejeon” was also omitted. The author expects the 'readers' to know his shame and pain in conscience for the foregoing. This paper is expected to fill the gap in the history of

새 자료 업상섭 「만세전」의  
「작자(作者)의 부기(附記)」(『시대일보』, 1924.6.4., 3면) 연구 153

studies on “Mansejeon” and contribute to deepening studies on  
“Mansejeon” through this data.

**Key words** : “Mansejeon”, Yeom Sang-seop, “Author's Note”, Sidaeilbo,  
March 1st Movement, Awareness of ‘Readers’, Mansehu(萬歲後)

[참고문헌]

■기본자료

염상섭, 「作者的 附記」, 『시대일보』, 1924.6.4., 3면.  
 \_\_\_\_\_, 「서序를 대신하여」, 『만세전』, 고려공사, 1924, 194면.  
 \_\_\_\_\_, 「自序」, 『견우화』, 박문서관, 1924, 1-3면.  
 \_\_\_\_\_, 『만세전』, 수선사, 1948, 203면.

■단행본

이보영, 『난세의 문학-염상섭론』, 예림기획, 2001, 123면.  
 주요섭 외, 『(소설집) 인력거군』,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339면.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2013, 651면.  
 \_\_\_\_\_, 『염상섭 문장 전집』 II, 소명출판, 2013, 152-153면.  
 \_\_\_\_\_, 『염상섭 문장 전집』 III, 소명출판, 2013, 376면.  
 \_\_\_\_\_,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53-54면.  
 한만수, 『잠시 검열이 있었습니다-떡칠과 가위질 100년의 사회사』, 개마고원, 2012, 50-51면.  
 한중모·심경섭, 『조선근대소설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182면.

■논문 및 기타 자료

김현주, 「잡지 『신생활』의 문화 정치와 러시아혁명사」, 『민족문화연구』 9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428-429면.  
 김현주·조정윤, 「『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 운동의 편린」, 『대동문화연구』 12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2, 155-156면.  
 박상준, 「지속과 변화의 변증법-〈만세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Vol.22 No.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화, 1997, 382면.  
 박정희, 「『만세전』 개작의 의미 고찰-‘수선사판’ 『만세전』(1948)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309면.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新生活)』」, 『사림』 49, 수선사학회, 2014, 83면.  
 박현수, 「『묘지』에서 『만세전』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만세전』 판본 연구」,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378면, 404면.  
 \_\_\_\_\_, 「『신생활』 필화사건 재고」,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원, 2019, 354면.

\_\_\_\_\_, 「신문지법과 필화의 사이—『신생활』 10호의 발굴과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295-296면.

오태호, 「염상섭 초기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사의 인식 변화 양상 고찰—중편소설 「만세전」 등에 대한 『조선근대소설사』(2013)의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8, 국어국문학회, 2022, 211면.

이재선, 「일제의 검열과 「만세전」의 개작—식민지시대 문학 해석의 문제」, 『문학사상』, 1979.11., 80면.

이정임, 「염상섭 소설의 판본 비교 연구—「만세전」, 「해바라기」, 『삼대』의 해방 후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3면.

이중호,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13면.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묘지와 “신석현(新潯縣)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Vol.27 No.2, 일지사, 2001, 110면.